‘찜찜’ 먹거리

곱창·족발·닭 등 무허가 업체 비위생적 처리 … 시중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하고 ‘친환경’ 속여 팔아 소비자 현혹도

국민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곱창·족발 등이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가 하면, 불결한 곳에서 불법 도축한 닭이 식당에 대량 유통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도 적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친환경 농산물’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조차 묵인하면서 먹을거리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서민 먹거리 불안=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무허가 판매업자에게 내장 처리시설을 임대해 돼지 부산물을 생산하게 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서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판매업자 황모(여·37)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박모(44·6급)씨 등 전남도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식육포장 처리 허가가 없는 부산물 판매업자 황씨에게 도축장 내장처리실을 빌려줘 돼지 4만1000마리 분의 부산물(4억8000만원 상당)을 절단, 포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기간 불법적으로 식육포장을 하고 내장처리실에서 곱창 8900여개(3600만원 상당)를 가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렇게 가공한 부산물을 군산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소속 검사관인 공무원들은 이 도축장에 파견돼 3개월씩 순환으로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례, 순천 등에 비닐하우스 축사를 만들고 닭을 밀도축한 뒤 순천·광양·구례 등 유명 계곡·산장 등 관광지 인근 280여개 식당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농장주 김모(51)씨와 박모(57)씨 등 6명을 입건했다.

또 전남경찰청은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유통한 양곡업자들을 지난 26일 붙잡았다.

◇원산지 못 믿고 친환경 농산물도 ‘찜찜’=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기로 484개소를 적발,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2010년 488건 ▲2011년 426건 ▲2012년 484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3월까지 206건이 적발됐다. 광주도 ▲2010년 311건 ▲2011년 278건 ▲2012년 244건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중국·칠레·미국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한 건수만 전국에서 908건에 달했다.

친환경 농가들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매년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친환경 농업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2010년 2114농가 ▲2011년 6121농가 ▲2012년 4395농가의 인증이 취소됐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1123 농가의 인증이 취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맛은 있을까나?” 27일 광주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아버지 요리교실’에서 참가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강사에게 전복죽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정한 거리

광주서 10대 남녀 싸움 … ‘구시청 파이트녀’ 동영상 확산

시민들 말리기는 커녕 부추기고 낄낄대며 휴대전화 촬영

광주 대표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의 싸움을 말리는 대신, 구경거리라도 난 듯 촬영하고 있는 시민들. 오른쪽은 여성이 남성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 대표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말리기는 커녕, 싸움을 부추기고 호응하는가 하면 두 남녀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만 열을 올리는 행태가 드러났다. 인터넷에선 ‘부끄러운 시민의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트위터 등에 ‘구시청 파이트녀’라는 제목의 5분짜리 동영상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자 청소년이나 젊은이 층이 많이 몰려 시비가 일거나, 과음에 따른 추태가 빈발하는 유흥가 일대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 M편의점 앞길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여성과 남성의 싸움 장면이 담겨 있다.

젊은이들 많이 몰려

시비·추태 많은 유흥가

경찰 순찰활동 강화를

영상은 여성이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영상에서 신발까지 벗어 던진 여성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여성을 뿌리치며 피하는 남성을 쫓아가 싸움을 걸었다. 길 한가운데는 이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스쿠터 한 대가 세워져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

남성은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상대가 여성이어서인지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다툼은 한 차량이 길가에 멈춰서 경적을 울려댈 때까지 계속됐고 길 막힌 차량이 경적을 울려대자 남녀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들의 짐을 챙겨 스쿠터를 한쪽으로 치운 뒤 골목길로 향했다.

동영상에는 또 주변 시민들이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를 외치는가 하면, “페북(페이스북)에 올려야겠다”, “야 보이는 데서 싸워라” 등 고함을 지르는 등 싸움을 부추기는 장면도 나온다.

두 남녀가 골목으로 자리를 옮기자, 젊은 행인 수십여명이 뒤쫓아가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한심한 행태도 보였다.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시민들 사이에선 “어쩌다 광주시민들이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들이 됐을까. 해도 너무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8848〉 김종두

동료 2명 살해한 승려 항소심 “징역 5년 더”

광주고법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시줏돈 갈등 끝에 동료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신앙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공구점에서 흉기를 사서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수건으로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고법, 박주선 공소장 변경 불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범위를 줄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동일성 원칙에 벗어났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을 풀어쓰고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 결과 별개의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기소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적용 법조 등만 달리해야 하는데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기존 공소사실에 박 의원이 직접 만들고 관여한 사조직을 통해 경선인 조직을 독려한 사실을 보강하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재진압 부상→수혈로 간염→간암 ‘30년 고통’

‘불운’과 싸운 소방관 자살로 삶 마감

화재진압 중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잘못된 수혈로 간염에 걸린 뒤, 간암으로 발전해 30년 이상 고통을 받다가 명예퇴직한 전직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광주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9층에 거주하는 전직 소방관 A(55)씨가 자택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4년 화재진압 중 부상을 당해 응급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피를 수혈받은 뒤, 1990년 B형 간염 판정을 받았고 20년 넘게 간경화로 고통받다가 암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간암 진단을 받은 뒤에는 심한 통증이 수시로 찾아왔고, 최근엔 진통제도 효과가 없고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하고 열이 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자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때 떠나고 싶다’며 지난 6월 3일 퇴직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학교 ‘배움터 지킴이’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는 학생보호 인력에 대해 학교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을 두고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배움터 지킴이를 채용할 때 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취약시간대 교내외를 돌아다니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을 말한다. /연합뉴스

알바했던 편의점 뒷문 침입 돈 훔쳐

쌍나팔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담배를 훔친 10대 학생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6·광주 모 고교 1년)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남동 한 편의점 창고 뒷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현금 15만 원과 담배 5갑 등 시가 16만 상당을 훔쳐 갔다는 것.

○…최근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그만둔 이군은 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25133	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3, 108동 1층 102호 [치평동,갤러리303] 175.31㎡	아파트	435,000,000 435,000,000	2013타경3703[중복]
2013타경2861	1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600-6 3층 303호 76.86㎡	아파트	73,000,000 73,000,000	임차인있음
2013타경3031	1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529 무등파크맨션 1동 3층 308호 59.85㎡	아파트	88,000,000 88,000,000	2013타경6153[중복]
2013타경4232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첨단중앙로181번길7,103동 4층 404호[월계동,동아아파트] 84.65㎡	아파트	129,000,000 129,000,000	
2013타경6542	1	나주시 삼영동 63 대덕아파트 302동 4층 506호 58.14㎡	아파트	55,000,000 55,000,000	임차인있음.토지별도등기있음
2013타경10312	1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 5동 6층 602호 84.83㎡	아파트	180,000,000 18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6382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23-16 129㎡	대	78,950,070 78,950,070	일괄매각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67번길 11 64.02㎡ 부속건물 변소 1.98㎡ 창고 1.65㎡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3타경5020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38, 121동 4층 403호 [소촌동,라인주택] 59.85㎡	다세대	78,000,000 78,000,000	
2013타경5921	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4, 1층 119호 16.0712㎡	다세대	60,000,000 6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1288	1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443 1090㎡[분묘2기 소재함]	임야	29,430,000 29,430,000	매각대상아닌비닐하우스소재함
2013타경3673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86-4 590㎡[공유자김현기지분2분의1전부]	전	147,500,000 147,5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4867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22 188㎡	전	198,700,000 198,70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22-7 681㎡	전		
2013타경6252	1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56 1421㎡[매각대상아닌미등기건물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임야	28,420,000 28,420,000	토지만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3932	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12, 8층 836호 34.58㎡	근린시설	28,000,000 28,000,000	
	2	동소 12, 9층 936호 34.58㎡	근린시설	28,000,000 28,000,000	
2013타경5310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452-19 155㎡	대	122,153,260 122,153,2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2부속건물변소1.20㎡는확인불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22 1층88.80㎡[음식점][현황:실측면적은약104.8㎡임] 2층70.74㎡[주택] 부속건물 변소 1.20㎡ 제시외 통로및창고 등 38㎡	근린시설		
2013타경6030	1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663-2 19835㎡	잡종지	259,000,000 259,000,000	목록1~7은지분매각.목록8은대지권미등기.일괄매각.목록1[공유자김재철지분119010000분의2003358전부].목록2[공유자김재철지분5652000분의36588전부].목록3[공유자김재철지분38576000분의838610전부]
		동소 663-3 942㎡	대		
		동소 663-7 6248㎡	주차장		
		동소 663-12 1789㎡[공유자김재철지분1073 4000분의180750전부]	잡종지		
		동소 663-15 582㎡[공유자김재철지분174600분의33000전부]	임야		
		동소 663-22 901㎡[공유자김재철지분540600분의74478전부]	임야		
		동소 663-27 6256㎡[공유자김재철지분64698000분의1406478전부]	주차장		
		동소 663-2 신풍암자동차매매장 103동 1층 17호 49.50㎡	근린시설		
[기타]					
2012타경30111	1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499-1 1355㎡	대	84,480,140 84,480,1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499-1 [현황:함석및스레트지붕] 200.33㎡ 부속건물 변소 3㎡ 제시외 건조장 등 132.4㎡	정미소		
		동소 499-1 1호 78.25㎡	주택		
2013타경667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68-14 305.1㎡	대	977,628,240 977,628,240	일괄매각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6-19 1층47.04㎡[계단,카운터] 2층190.05㎡ 3층190.05㎡ 4층190.05㎡ 5층190.05㎡ 6층190.05㎡[2~6층각여관]	숙박시설		
2013타경4478	1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242 192㎡	창고	34,560,000 34,560,000	건물만매각.현재빈창고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7. 12.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7. 19.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ㅁ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영훈